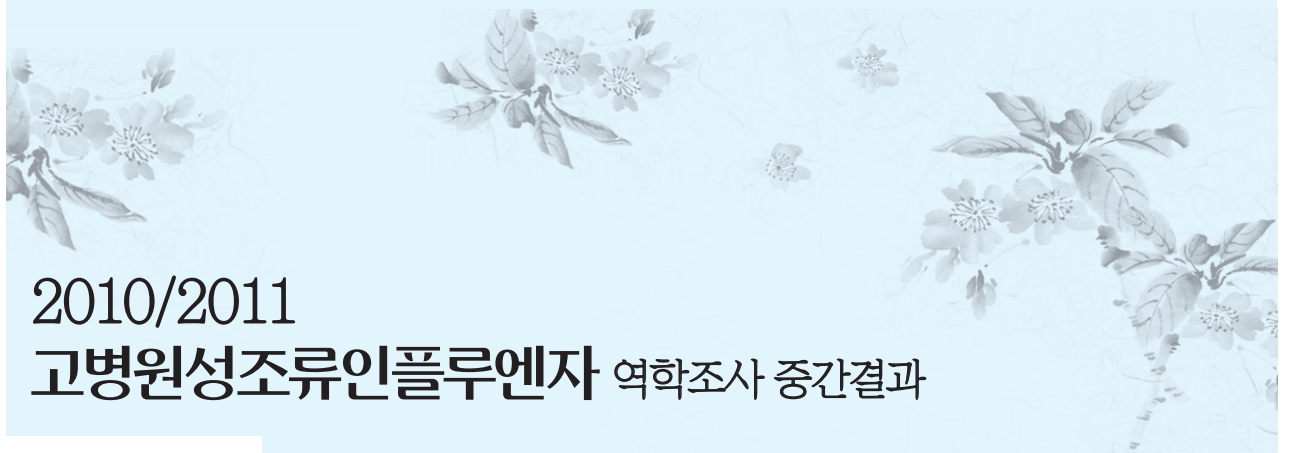


안내자료 I



2010/2011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 중간결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지난 2010년 12월 29일 충남 천안과 전북 익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5N1)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실시된 역학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입요인 및 전파경로를 중간 발표하였다. 2011년 2월 6일까지 5개 시·도(16개 시·군)에서 총 40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으며 축종별로는 오리 28건(육용 20건, 종오리 8건), 메추리·꿩 각 1건, 닭 10건(산란계 5건, 종계 3건, 육계 1건, 토종닭 1건) 발생, 지역별로는 전남 21건, 경기 11건, 충남 5건, 전북 2건, 경북 1건이 발생하였다.

금번 국내에서 발생한 HPAI는 감염된 축종에 따라 임상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종오리의 경우 폐사는 거의 없으나 급격한 산란율 저하가 특징이며 육용오리는 주로 25~40일령에서 발생하여 높은 폐사율을 보였으며 감염된 닭에서는 일령에 관계없이 매우 높은 폐사를 보였다.

2010/2011년 국내 발생한 HPAI의 유입원인은 철새에 의해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2010년 11월 23일부터 2011년 2월 6일까지 전남 해남, 전북 익산, 경기 평택, 울산 울주 등 7개 시·도 지역의 야생조류(수거분변 5건 포함)에서 H5N1이 17건 분리되었고 야생조류 분리 바이러스와 국내 발생농장에서 분리한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결과 동일한 그룹(HA 유전자군 2.3.2 그룹)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는 2009년과 2010년 몽골의 큰고니, 2009년 중국 칭하이 빨눈 병아리에서 분리된 바이러스 분리주와 유사하였다.

또한 국내에 유입된 HPAI(H5N1) 바이러스는 농장인근에 서식하는 감염된 철새 등 야생조류의 분변에 오염된 사람 또는 차량이 농장을 방문함으로써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직·간접 접촉에 의해 유입된 것(40건 중 22건)으로 추정된다. 감염된 철새 등의 분변에 의해 오염된 남은 음식물 급여를 통한 유입이나 감염된 철새 등의 직접접촉(방사사육인 경우)에 의한 유입 등이 있다. 한편, 전남 영암·나주 등 다발지역내 농장 간 바이러스의 전파는 오염농장을 출입한 사료·왕겨차량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높으며, 그 외에도 오염 농장을 방문한 인적·물적 이동에 의해 전파된 것(40건 중 18건)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염장소(계근사업소) 방문에 의한 전파, 오염농장에서 인근농장으로 전파나 농장주의 오염농장 방문(모임)에 의한 전파 등이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야생조류(철새 등)에서 HPAI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분리되고 있고, 철새들이 봄철까지 우리나라에서 월동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HPAI가 국내에서 추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면서 닭, 오리 등 가금을 사육하는 농장에서는 철저한 소독은 물론, 야생조류와의 접촉금지 및 농장내로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하고 축사를 출입할 때는 전용 신발을 착용하는 등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나 시·도 방역기관(☎ 1588-4060, 1588-9060)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사항

- 국내 야생조류의 HPAI 바이러스 분리 현황
 - 2008년 국내 HPAI 발생 시 철새 등 야생조류에서 폐사를 일으키거나 HPAI 바이러스가 분리된 사례는 없었지만 2010/2011년에는 7개 시·도에서 다양한 종류의 철새에서 HPAI 바이러스가 분리(총 17건)
 - 특히 야생조류(철새)의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분리되는 등 병원성이 강한 것으로 추정
- 일본에서의 야생조류 HPAI 바이러스 분리 현황
 - 일본도 최근 철새(5건)·가금농장(닭, 11건)에서 HPAI 발생
- 금번 발생한 HPAI는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으로 강력하게 실행되는 차단방역조치가 HPAI의 지역 간 전파방지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분석됨

< 참고자료 >

역학조사위원회(가금질병분과) 권고사항

■ 가금 사육농가의 신속한 신고와 자율방역이 중요

- 농가에서는 산란율 감소, 폐사율 증가, 사료 및 음수량 섭취 감소, 청색증(벼슬, 다리) 등 특이한 임상증상 발견시 시·도 가축방역기관이나 검역원(☎ 1588-9060, 1588-4060)으로 신속히 신고

안내자료 I

- 축사, 사료창고 · 왕겨보관창고 · 분뇨처리장 등 농장내 관련 시설에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 그물망 설치, 비닐포장 등으로 야생조류와 접촉을 차단
- 사료저장통 주변 등 축사 주위의 사료를 깨끗이 하고, 농장 주변에 야생 조류의 숨을 곳 제거 등을 통하여 야생조류가 접근할 환경을 사전에 제거
- 농장 출입 차량 및 사람을 통제하며, 방문하는 사료차량 · 가축수송차량 · 동물약품 · 컨설팅 등 축산관련차량 및 탑승자에 대하여 철저히 소독하고, 축사 입구에 발판소독조 설치와 신발 소독, 축사 내 · 외부 1일 2회 이상 소독
- 철새 등 야생조류 출몰지역(저수지, 하천, 습지, 인근 논 · 밭 등)의 출입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출입 시 신발, 의복 등 세척 및 소독철저
- 왕겨 사용농가에서는 포장재(포대) 재사용 금지
- 농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 강화

■ 가금 밀집 사육지역에 대한 중점 방역관리 필요

- 가금 사육 밀집지역에서는 농가 간 방문 및 모임 등을 통한 질병유입과 확산 가능성이 높으나 농장 간 방문 및 모임 자제
- 위탁농장에 출입하는 계열회사 축산관련자(컨설팅, 사료운반 등)들에 대한 방역교육 강화 필요

■ 양축농가, 관련단체, 공무원 등에 대한 AI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철새도래지 방문금지, 불가피하게 방문시 방문 후 소독철저
- 야생조류 사체 발견 시 시 · 도 가축방역기관이나 검역원 (☎ 1588-9060, 1588-4060)으로 신속히 신고토록 홍보
- 농가 예찰강화 및 축산농가의 신속한 신고 유도
- AI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풍세천 주변 등)에 대한 집중관리

■ 관련기관 협조체계 구축

- 질병관리본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유관기관과 질병발생상황 및 정보 교류로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대응